

# 는 등 마는 등

무슨 일을 하기는 하지만 열심히 하지 않거나 제대로 하지 않음을 나타냅니다. 동사와 함께 사용됩니다.

- 아버지는 신문을 보느라고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했다.
- 무슨 생각을 하는지 수업을 듣는 등 마는 등 하다가 선생님한테 지적을 받았다.

※ '-는 등 마는 등'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.

잠을 자다      내 말을 듣다      공부하다      뛰다      노래를 부르다      밥을 먹다

1. 간밤에는 윗집에서 하도 쿵쿵대서 \_\_\_\_\_.
2. 아내는 더위 때문에 입맛이 없어서 \_\_\_\_\_.
3. 가사를 아직 못 외워서 무대에서는 \_\_\_\_\_.
4.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\_\_\_\_\_ 감독이 버럭 화를 냈다.
5. 시험 때에는 시간이 없어서 뒷부분 내용은 \_\_\_\_\_.
6. 아이한테 몇 번이나 잔소리를 했지만 \_\_\_\_\_.

※ '-는 등 마는 등'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.

가 : 전시회는 잘 봤어?

나 : 아니, 사람이 너무 많아서 그냥 보는 등 마는 등 했어.

1. 가 : 윤지하고 미영이는 무슨 일 있어? 서로 얼굴을 봐도 \_\_\_\_\_.  
나 : 응, 어제 과제 때문에 심하게 싸운 모양이야.
2. 가 : 이 책 읽었지? 내용 좀 요약해 줄래?  
나 : 읽기는 읽었는데 \_\_\_\_\_ 기억이 잘 안 나.
3. 가 : 지원이 요즘 피곤해 보이더라.  
나 : 밤에 남자 친구랑 통화하느라고 \_\_\_\_\_.
4. 가 : 넌 수업 시간에 왜 핸드폰만 보고 수업을 \_\_\_\_\_?  
나 : 이미 다 아는 내용이거든.
5. 가 : 선생님, 이제 운동 시작할까요?  
나 : 스트레칭부터 해. 그렇게 \_\_\_\_\_ 부상을 당할지도 몰라.
6. 가 : 오늘 올라 씨 발표는 어땠어?  
나 : 요즘 일이 많아서 \_\_\_\_\_ 결국 망친 모양이야.

# 답

※ '-는 등 마는 등'을 사용해서 문장을 완성하세요.

1. 잠을 자는 등 마는 등 했다.
2. 밥을 먹는 등 마는 등 했다.
3. 노래를 부르는 등 마는 등 했다.
4. 뛰는 등 마는 등 해서
5. 공부하는 등 마는 등 했다.
6. 내 말을 듣는 등 마는 등 했다.

※ '-는 등 마는 등'을 사용해서 대화를 완성하세요.

1. 인사를 하는 등 마는 등 하네.
2. 읽는 등 마는 등 해서
3. 자는 등 마는 등 한대.
4. 듣는 등 마는 등 하니?
5. 스트레칭을 하는 등 마는 등 하다가는
6. 준비를 하는 등 마는 등 하더니